

사회

광주·전남 사범대 A등급 한곳도 없다

<우수>

교과부 평가… 전남대·조선대·순천대 B등급

목포대는 미흡… 상향 안되면 정원 20% 감축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범대학 학부 평가 결과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A 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

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한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전남 대와 조선대, 순천대는 현행 운영체 제를 유지하는 B등급(보통)을 받았

다. B등급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건국 대, 경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26개 대학이 포함됐다.

그러나 목포대는 1년 이내 재평가를 받게 해 평가점수가 B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받는 C등급(미흡)으로 분류됐다.

목포대와 함께 강남대, 강원대, 관동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안동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 11개가 C 등급으로 매겨졌으며 D(부적합)등급을 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정원 조정자율권 등의 혜택을 주는 A등급(우수)은 지방 소재 공주대, 충남대, 대구대를 포함해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8 개 대학이 받았다. A등급을 받으면 학과 또는 과정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

■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결과(45개교 대상)

등급	대학수	대학명
A등급	8	고려대, 광주대, 대구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B등급	26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대, 신라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총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흥의대
C등급	11	강남대, 강원대, 관동대, 목포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안동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는 복수전공제 운영자 격도 준다.

평가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으며, 1주간 이의 제기를 받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한편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에서는 A와 B등급이 아예 없었고 C등급 18개, D등급 31개가 나왔다. 전국 4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 평가

에서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은 31개 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는 A등급 1개 대(이화여대), B등급 1개대(부산대)가 있었고 조선대 등 C등급 14개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 D등급 24개대로 나타났다. 재교육기능만 수행하는 교육대학원 4곳은 모두 D등급을 받았고 일반대학 교육과(3개교) 중에서는 동국대가 B등급을 받았다.

/체험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교차로 10곳 등 전국 90곳

'좌회전 유도차로' 도입

내달 15일부터 시범 운영

경찰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개월 간 광주·전남 10곳 등 전국 90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통과거리를 줄여 차량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좌회전 유도차로'를 설치,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 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차로로, 비보호좌회전 또는 직진 우선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유도차로로 진입한 뒤 반대편 직진차량이 끌어지면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직진 우선 신호 교차로에 서는 녹색신호에 진입한 뒤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하면 된다. 다만 차량은 황색신호나 적색 신호일 경우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좌회전 유도차로가 도입되면 좌회전 차량의 통과거리가 줄어 안전성이

■ 광주·전남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운영 교차로

지역	교차로
광주	북구 대촌마을 사거리
	북구 대촌영리교회 사거리
	북구 우치공원주차장 삼거리
	북구 생통마을입구 삼거리
전남	목포시 산정동 농공단지 사거리
	목포시 석현동 중앙병원 삼거리
	여수시 화정동 미니스톱 사거리
	순천시 웅종동 부영 A 11차 삼거리
	광양시 광영동 도촌 사거리

높아지고 교차로 내 공간활용이 극대화돼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광주는 북구 우치공원 앞 삼거리 등 5곳에서, 전남은 목포시 산정동 농공단지 앞 사거리 등 5곳에서 각각 시범운영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교통량이 많은 일본의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좌회전 유도차로가 설치돼 있다"면서 "좌회전 차량의 대기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주말휴일 흐리고 비

8월 마지막 주말인 28일과 휴일인 29일 광주·전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새벽이나 아침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

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따"며 "휴일인 29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29일까지 광주·전남 중부내륙지방 예상 강우량은 10~50 mm이며, 해안 및 동부내륙지방은 50~100mm(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 mm 이상)다.

/양수현기자 yang@

광주·전남 지자체도 스마트폰 열풍

남구·광산구 등 실시간 주민 소통 서비스 활용

1 회사원 박모(여·2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최근 광주시 남구청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follower·해당 트위터의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가 됐다. 박씨는 남구청에서 트위터에 올린 각종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보며 구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올리곤 한다.

2 최영호(45·남구청장은 매일 아침 출근 차량에서 스마트폰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청 홈페이지 주요 게시판에 전날 밤 새로 올라온 민원인들의 글을 읽는다. 그는 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각종 여론을 살피기도 한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등 스마트폰 보급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 이날 현재 남구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746명에 이른다.

광산구도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산과 맞물려 인터넷으로 구정에 참여하려는 주민이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전남도 역시 전 직원에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관광 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에着手하는 등 '스마트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동통신사의 지원을 받아 도청 청사와 의회에 무선인터넷(Wi-Fi)을 구축하고, 직원들은 2년 약정에 기본료를 내고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보급받는다'는 계획을 지난 10일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그리스 로마신화' 이윤기씨

심장마비로 별세

소설가 이윤기씨가 27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享年63岁。

1947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하얀 헬리콥터'가 입선해 등단했으며 1998년 중편소설 '숨은 그림찾기'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그리스로마 신화 등 신화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번역가로도 이를 널리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

저서로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1, 2, 3권' 이윤기, 그리스에 길을 둘다' '노래의 날개' 등이, 역저로는 '그리스인 조르바' '장미의 이름', '변신 이야기' '푸코의 진자' '양들의 침묵' 등이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누리꾼 "티블로 의혹 조사해 달라"

○…가수 타블로의 학력·국적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검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 여부와 불법 이중국적 의혹을 밝혀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민원 3건을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중.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로는 명문대 출신의 지성파 래퍼로 인기를 얻었으나, 일부 네이티즌이 '학력을 위조하고 한국·캐나다 이중 국적을 불법으로 유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

○…이에 대해 타블로의 소속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런 의혹을 거듭해 제기한 네이티즌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 /연합뉴스

'뇌물수수' 前 해남군수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대웅제약 '코큐텐'·㈜대상 '마시는 홍초' 등

허위·과대 광고 85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7월 인터넷 및 신문 매체를 통해 일반식품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325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는 심장질환·고혈압·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린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코큐텐', 변비치료·이뇨작용·관절

염·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대상의 음료 '마시는 홍초'가 적발됐는데 모두 영업정지나 고발조치를 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에 대해 접속차단하거나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27일 광주교도소에서 열린 '수용자 아버지 학교 수료식'에서 인창호 광주고검장과 고종석 광주지방법정청장, 자원봉사자 등이 순결한 아버지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수형자들의 밀을 쟁겨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뜰 06시 02분 해질 20시 27분

날씨 19시 06분 물질 09시 04분

폭우 주의

흐리고 비가 오겠다. 해안지역은 강풍과 해일이 예상된다.

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따"며 "휴일인 29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29일까지 광주·전남 중부내륙지방 예상 강우량은 10~50 mm이며, 해안 및 동부내륙지방은 50~100mm(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 mm 이상)다.

/양수현기자 yang@

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따"며 "휴일인 29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29일까지 광주·전남 중부내륙지방 예상 강우량은 10~50 mm이며, 해안 및 동부내륙지방은 50~100mm(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 mm 이상)다.

/양수현기자 yang@

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따"며 "휴일인 29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29일까지 광주·전남 중부내륙지방 예상 강우량은 10~50 mm이며, 해안 및 동부내륙지방은 50~100mm(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 mm 이상)다.

/양수현기자 yang@

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따"며 "휴일인 29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29일까지 광주·전남 중부내륙지방 예상 강우량은 10~50 mm이며, 해안 및 동부내륙지방은 50~100mm(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 mm 이상)다.